

# 제14회 도로의 날 행사 후기

노성규 한국도로교통협회 책임연구원

## 1. 개요

한국도로교통협회는 “제14회 도로의 날”을 기념하여 2005년 7월 7일 경기도 일산에 소재한 국제전시장(KINTEX)에서 기념행사를 개최

하였으며, 도로의 날 행사시 우리나라 도로교통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여 도로교통인의 사기를 앙양하고 모든 기술인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 제14회 도로의 날 기념식 및 부대행사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도로의 날 기념식	2005. 7. 7(목) 10:30~11:20	한국국제전시장(KINTEX) 3층 그랜드볼룸
정책토론회	2005. 7. 7(목) 14:00~17:00	한국국제전시장 303호 회의실
2005 세계도로교통박람회	2005.7.7~7.10(4일간) 10:00~17:00	한국국제전시장 4, 5전시홀
제1회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	2005.7.7~7.8(2일간) 10:00~17:00	한국국제전시장 그랜드볼룸 및 회의실

특히, 금번 “도로의 날”에는 부대행사로써 매년 진행되던 “정책토론회” 뿐만 아니라 “2005세계도로교통박람회”와 “제1회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 등의 국제행사를 동시에 개최하여 세계 각국의 도로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도로의 날 행사를 국제적 행사로서 성대하게 치러냈으며, 우리나라 도로 기술력을 과시하고 양양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II. 제14회 도로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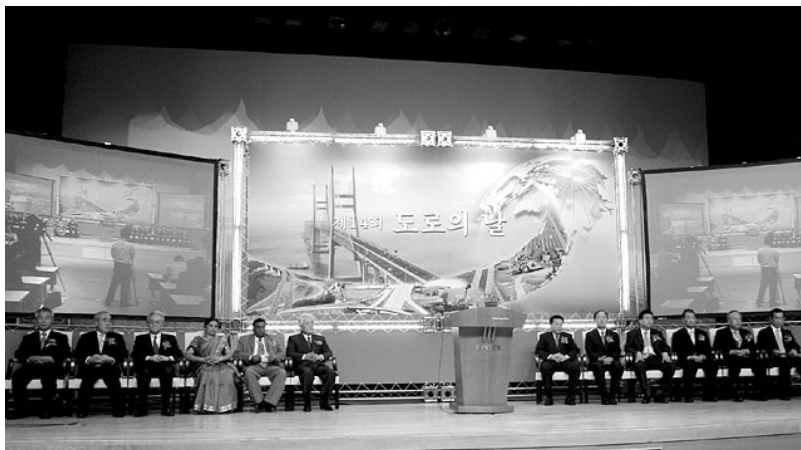
도로의 날은 우리나라 경제와 도로교통분야 발전의 획기적인 전기가 된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하여 도로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널리 알리고 도로발전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자 1992년부터 7월 7일을 도로의 날로 지정하였으며, 우리 협회의 주관 하에 매년 기념식 및 부대 행사를 거행하고 있다.

금년으로 제14회를 맞은 도로의 날 행사는 경

기도 일산에 소재한 KINTEX(한국국제전시장)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되었으며,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김한길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스리랑카 차관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분야의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관계인사 1,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 어느해 보다도 성대하게 행사가 개최되었다.

금번 도로의 날 기념식은 10시 30분 사회자의 개식으로 시작되었으며, 행사준비위원장을 맡은 한국도로교통협회 조건창 상근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現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기념사가 이어졌다. 기념사에서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세계 11위권의 도로선진국으로 발전하였음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머무르지 말고 보다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를 통해 고속도로가 국가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 국가 경제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해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협회장의 기념사가 끝난 후 우리나라 도로교



[그림 1] 도로의 날 행사사진

통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이 수여되었으며, 금번 포상에는 훈장 3명 포장 3명, 대통령표창 6명(단체 포함), 국무총리표창 7명, 건설교통부장관표창 30명(단체 포함), 한국도로공사사장표창 12명, 한국도로교통협회장상 10명이 수상하여 도로교통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모든 기술인들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유공자 포상 후 최재덕 건설교통부 장관은 치사에서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균형있는 국토를 조성하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참여정부

의 계획을 강조하였으며,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른 인간중심의 도로가 구축되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또한, 김한길 국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분야가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하였지만 내용면에서 아직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도로교통인들이 앞으로 더 노력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는 한편,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도로교통인들 모두가 힘을 합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림 2] 도로의 날 유공자 포상



[그림 3] 도로의 날 경과보고, 기념사, 치사, 축사(좌로부터)

## 기념사 (손학래 한국도로교통협회장)

(인사말 생략)

오늘은 경부고속도로 개통 35주년이 되는 날로서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함께 그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도로교통인의 불굴의 의지와 창조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자기 혁신으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술과 자본이 턱없이 부족한 시절 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것은 커다란 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족 특유의 노력과 성실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훌륭한 고속도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 결과 전국 일일 생활권을 이루었으며, 물류 수송체계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고속도로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총 10만여 km의 도로망을 구축하였으며, 국내 수송량의 90% 이상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동맥인 고속도로 또한 현재 24개 노선에 약 3천km로 세계 11위의 도로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 없습니다. 활발한 기술정보 교류를 통하여 국가 산업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간다면 도로교통 기술 역시 한층 발전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기념식에 이어서 개막되는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도로교통 박람회는 국제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기자재와 장비의 보급은 물론 정보교류의 장이 될 것이며, 도로교통의 기술발전 및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과 국가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로의 날 행사가 이와 같이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끝으로, 도로의 날을 경축하기 위하여 오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치사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인사말 생략)

도로의 날 오늘은 35년전 1970년 7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을 기념하여 제정된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당시 경부고속도로는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우리의 피와 땀으로 일구어낸 실로 값진 역사적 사업이었습니다. 오늘까지 경부고속도로는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도 정부의 교통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교통 기술인 여러분들의 헌신에 힘입어 73년에는 호남고속도로, 87년에는 중부고속도로, 2001년에는 서해안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2004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대구~포항간 고속도로를 각기 개통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에는 통영~대전간 고속도로를 개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약 3,000km에 달하는 고속도로망과 14,000km에 이르는 국도망을 보유하게 되어 전국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됨으로서 그간 낙후된 지역이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교통인프라를 꾸준히 확충해왔습니다만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참여정부는 21세기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대비하여 생산적이고 균형 있는 국토를 조성하면서 국가기간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내에 고속도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양해진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 도로 건설에 주력하는 한편, 각종 도로 정보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 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안전하고 편리하고 빠른 인간중심의 도로가 구축되도록 도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대한의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

도로교통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나라 도로교통분야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되고 21세기에 우리 도로교통인들이 수행하여야 할 막중한 역할을 다시한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끝으로 오늘 수상하신 유공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아울러 이번 행사를 준비하신 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로교통인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축사 (김한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인사말 생략)

인류의 발달사는 길의 발달사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샘에서 샘으로 이어지는 길이 사회라는 공동체를 만들었고 문명에서 문명으로 이어지는 길이 역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5년전 오늘 국토의 균형발전과 경제발전이라는 우리의 염원이 담긴 경부고속도로가 개통되었습니다.

고속도로 시대의 개막은 우리들의 생활과 의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는 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3,000여 km의 고속도로와 10만여 km의 총 도로망을 보유한 도로선진국으로 발전해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것은 그간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과 헌신에 힘입은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관계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분야는 그동안 외형적인 면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아직도 선진외국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체 도로 중 2차 도로가 76.6%에 달하고 도로포장율도 역시 7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른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약간 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북연결도로 사업, 아시안하이웨이 구축사업 등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서 요구되는 과제들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숙제가 우리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건설당시 여러분의 의지력과 창조의 정신 그리고 기술발전 노력으로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지원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경쟁력 있는 국토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갑시다.

오늘 그간의 공헌으로 포상을 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III. 정책토론회

#### 1. 정책토론회 개요

우리 협회에서는 매년 “도로의 날”을 맞이하여 도로교통분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향후 도로교통 분야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도로의 날 기념식 행사 후 부대행사로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 제14회 도로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는 “국가 경쟁력과 도로의 역할”이란 주제 하에 정부

관계자, 학계, 연구원, 업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발표자 및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특히, 김수삼 한양대학교 부총장님의 사회로 진행된 금번 정책 토론회에는 약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나타난 ‘도로 SOC’ 사업 축소에 대해 도로교통산업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과 선진국과의 도로교통 인프라 비교 그리고 투자 감소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4편의 주제발표가 있는 후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표 2〉 정책토론회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현황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제
사회자	김수삼	한양대학교, 부총장	-
발표자	김대하	(주)동일기술공사, 사장 도로기술사회, 회장	기본설계 의무화와 도로품질 제정 필요
	강정규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연구위원	국가 간선도로 기능강화 방안
	이춘용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도로역할 강화를 통한 통합 국토 네트워크 완비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건설의 정책 방향
토론자	송기섭	건교부, 도로정책과장	-
	김정현	한양대학교, 교수	-
	김동녕	단국대학교, 교수	-
	김연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



[그림 4] 제14회 도로의 날 정책토론회

## 2. 주제발표

### 1) “기본설계 의무화와 도로품질의 제정 필요”

○발표자 : 김 대 하 ((주)동일기술공사 사장, 도로 및 공항기술사회 회장)

○발표내용 요약

- 기본설계시 민원수렴, 관계기관 협의,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수행하여 민원에 의한 공사중단 및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1999년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을 통해 기본설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음. 하지만,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수립 이후에도 건교부 및 지자체 등에서 사전에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를 발주함으로써 기존의 문제점들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는 기본설계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며, 장기적인 Master Plan 없이 차년도 예산을 수립하는데도 그 이유가 있음.
- 따라서, 기본설계 완료시 노선을 지정할

때 통과지역만 고시할 것이 아니라 도로 예정지 고시를 병행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32조에서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노선의 변경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임.

### 2) “국가 간선도로 기능강화 방안”

○발표자 : 강 정 규(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 기술원 연구위원)

○발표내용 요약

- 1968년 경부고속도로 건설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도로건설 산업은 국가경제성장을 견인하며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음. 이러한 결과로 국내 도로총연장은 1968년 35,025km에서 2002년 96,037km로 양적으로 확충되었으며, 발달된 도로망은 폭발적인 자동차 증가를 유도하여 1,5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가 등록되었고 이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 발전의 바탕이 되었음.



-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도로 건설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많은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으며, 국가 재정적으로 복지나 국방 등 돈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져 도로를 비롯한 SOC에 재정투입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특히, 도로의 대체교통 수단인 철도 등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공감을 얻고 있으며, 환경 등 도로 악영향에 대한 국민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 따라서, 이제 도로가 계획되고 건설되어 이용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변화되지 못하고, 도로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함으로써 초래한 도로부문에 대한 사회적 믿음 상실이 결국 투자감소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논리적 반성이 필요할 것임.

### 3) 도로 역할 강화와 통합국토 네트워크 완비

○발 표 자 : 이 춘 용(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발표내용 요약

- 도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산업·경제활동에서 매우 다양하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로는 외국이 과거 약 100년간 자동차시대에 대비하여 꾸준히 도로스톡을 축적해온 것과 달리 그 역사가 짧음.
- 1960년대 이후 도로의 규모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꾸준히 확충되어 왔으나 최근 도로의 역할 증대와 함께 도로투자에 대해 일련의 회의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제 우리나라의 도로연장은 일정 수

준이 되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지역의 도로가 너무 고규격으로 건설되어 과다투자요인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있고 이로 인하여 지역생활권의 단절, 자연 환경 훼손 등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도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통합 국토 네트워크를 완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국가경영 차원의 과제이자 목표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도로가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살펴보고, 현안 해결과 국토 여건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도로부문 대응전략을 설정하였음.

### 4) 국제비교를 통한 도로건설의 정책방향

○발 표 자 : 신 희 철(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원)

○발표내용 요약

-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주요 사회간접자본 특히,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의 교통 인프라를 적기·적소에 공급하여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기업의 생산과 투자활동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생산 및 소비활동을 뒷받침해야 할 것임.
- 하지만, 교통부문 SOC 스톡 및 투자규모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규모에 비해 과잉 교통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줄여야 한다는 견해와 향후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현재의 교통 SOC 투자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도로교통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이에 대한 분석적 논의가 필요하며, 이에 우리나라의 도로교통 시설 스톡 수준을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도로건설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3. 토론 내용

#### 1) 김 정 현,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 ○토론내용 요약

- 건설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현실적으로 건설산업은 수요에 따라갈 수 밖에 없음.
- 양적 측면에서 도로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지만, 최근 건설되는 도로가 기능과 위계에 따라 적절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 있으며, (예, 국도가 고속국도 수준으로 설계) 투자재원을 최적화 시켜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2) 김 연 복,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내용 요약

- SOC전체 예산에서 도로부문의 예산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따라서 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하지만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도로의 투자 마인드를 일으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임.
- PI제도(지역주민참여)를 도입하여 기본

설계를 의무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언론에서 제시되는 도로 및 건설산업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제고하여 국민의 needs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3) 김 동 녕, 단국대학교 교수

##### ○토론내용 요약

- 품셈을 제정하는 의견에 동의하지만 설계의 품을 정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난이도에 따라 어떻게 품을 정해야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점이 아쉬움.
- 간선도로 기능 강화에 대한 내용은 공감하며, 도로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공통된 의견임. 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대도시는 공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어려우며 지방지역은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함.
-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관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 즉, 수요가 있는 곳, 타당성이 있는 곳에 도로를 공급하기 위해선 대도시에 도로건설이 필요함.
- 지방부 도로 건설시 수요예측도 도로전문가가 한 것인데 건설 후에 도로의 수요가 예측치보다 적은 것은 도로전문가가 제대로 된 수요예측을 하지 못한바가 크므로 반성해야 할 부분임.

4) 박 용 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

○토론내용 요약

- 향후 도로분야의 추세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정도로 예측이 가능하며, 이에 대해 건설업계 및 엔지니어 업계의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임.
- 첫 번째, 도로분야의 고규격 및 고급화 추세
- 두 번째, 국제화(아시안하이웨이) 추세
- 세 번째, 지방분권화된 도시간 도로망 연결에 새로운 수요를 예측하고 창출해야 할 것임
- 네 번째,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도로인들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과 비전을 제시해야 할 것임
- 다섯 번째, 주민참여를 통한 갈등해소가 필요할 것이며, 기본설계당시에 PI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5) 송 기 섭, 건설교통부 도로정책과장

○토론내용 요약

- 현재 고속도로는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있으나 국도에 대해선 대부분 기본설계를 하지 않고 있으며, 건교부 입장에서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있음.
- 첫 번째, 예산상의 제약
- 두 번째, 국도사업의 경우 사업구간 전후가 이미 연결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도사업은 Missing구간에 대한 사업으로서 적정거리가 나오지 않으며, 노선은 이미 확정이 된 상태가 많으므로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

- 세 번째, 최근 건교부에서는 선부상 사업을 국도사업에 도입하고 있음. 하지만, 선부상과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동시에 할 경우 단위사업계획이 5년임을 감안할 때 시간적으로 부족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향후 노선변경 가능성이 높거나 장거리 부문에 대해선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음.

IV. 제1회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

1. 개요

금년도 우리협회에서는 제14회 “도로의 날” 부대행사로써 도로·교통 분야의 최근 연구, 기술,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외 도로교통 전문가 및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Roads to Global Society”란 주제 하에 7월 7일(목)~8일(금) 2일 동안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제1회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금번 “제1회 국제도로교통학술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라오스, 스리랑카, 몽골 등 8개국의 도로교통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7개의 분야(Special Session 포함)별로 다양한 주제발표를 하였으며, 각 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본 학술대회를 위해서 S. Amarasekara 스리랑카 건설교통부 차관, Sommad Pholsena 라오스 교통통신건설부 차관, Toshoon Sambasanchir 몽골 건설교통부 차관, Brian Harris IRF 부회장, Shigeru Morichi 일본 운



[그림 5] 학술대회 개회식



[그림 6] 학술대회 축사 및 기조연설

수정책연구소장, Vladimir Timofeev UNESCAP 자문위원(Advisor) 등의 해외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으며, 7일 개최된 개회식 행사에서 기조연설 및 축사 등을 맡아주었다.

## 2. Session 별 현황

금번 학술대회는 7월 7일~8일 양일간에 걸

쳐 개최되었는데, 7일 오후에는 학술대회 개회식을 시작으로 해외 각국에서 참가한 주요 VIP들을 대상으로 하는 Special Session(Vip Round Table Meeting)과 Session 1이 진행되었으며, 7월 8일에는 각 분야별로 Session 2~Session 6이 진행되었다. 각 Session 별 주제와 발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Special Session(VIP Round Table Meeting)

- 주 제 : “Transportation Network Connection and Construction for Korea & East Asia”  
“Cooperation of Highway Construction between Nations”
- 좌 장 : 강 재 홍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Sigeru Morichi 일본운수정책연구소 소장
- 참가자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직 위
미 국	Sam Schwartz	Sam Schwartz, PLLC	President
스리랑카	Sirisena Amarasekara	Ministry of Highway	Vice Minister
미 국	Brian Harris	IRF	Vice President
몽 골	Toshoon Sambasanchir	Ministry of Construction	Vice Minister

2) Session 1

- 주 제 : “Transportation Network Connection for Korea & East Asia”  
(남북한 및 아시아 교통망 연결방안)
- 좌 장 : 홍 갑 선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 발표자 및 토론자

구 분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 제
발표자	일본	Hiroyuki Fujikawa	Japan Road Association	The Construction and Current Issues on the Expressway Network in Japan
	태국	Vladimir Timofeev	UNESCAP	Asian Highway Development Strategy
	한국	한상진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Highway Network Connection in the Korean Peninsular
토론자	일본	Tomotsu Nakano	American University	-
	중국	Zhu Yehui	American University	-
	한국	서훈택 과 장	건설교통부	-

## 3) Session 2

- 주 제 : “Transport Construction for Korea & East Asia”  
(남북한 및 아시아 교통망 건설방안)
- 좌 장 : 전 경 수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자 및 토론자

구 분	국 가	이 름	소 속 기 관	주 제
발표자	미 국	Sam Schwartz	Sam Schwartz, PLLC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Transportation Study
	중 국	Wenhua Wu	Institute of Comprehensive Transportation of NDRC	Transport Infrastructure Development in China
토론자	일 본	Shigeru Morichi	Institute for Transport Policy Studies	
	한 국	유경수 센터장	한국도로공사 교통정보센터	
	UNESCAP	Vladimir Timofeev	Transport & Tourism Division	

## 4) Session 3

- 주 제 : “Sustainable Transport & Public Involvement”  
(지속가능형 교통체계 및 시민참여)
- 좌 장 : 이 용 재 중앙대학교 교수
- 발표자

국 가	이 름	소 속 기 관	주 제
한 국	권영인 연구위원 윤성순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인천대학교	PI Initiative for Highway Constructions in Korea
한 국	남두희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Accidents Model with Zero- Altered Probability Process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 제
한 국	문영준 연구위원	한국교통연구원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Traffic Signal Control System Utilizing Wireless Communications
일 본	Hiromitsu Yajima	Institute of Behavioral Science	Lessons Learned from Introduction of Public Involvement for Transportation Decision-Making in Japan
한 국	이재영 선임연구원	한국 철도기술연구원	Evalu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Using Simplified Life Cycle Assessment(SLCA) for Electric Motor Unit (EMU) in Korea



[그림 7] 학술대회 Session 진행장면

## 5) Session 4

- 주 제 : “Road Construction & Pavement Technology (도로 및 포장)”
- 좌 장 : 이 석 홍 현대건설기술연구소 수석연구원
- 발표자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제
미 국	Y. Richard Kim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Determination of Price Reduction Factors for Density Deficient Asphalt Pavements
미 국	Moon W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Evolution of Specifications for Portland Cement Concrete Pavements in Texa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미 국	William E. Wolfe	The Ohio State University	Accelerated Load Testing of Full-Scale Pavement Sections
한 국	김형배 책임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기술원	A Practical Probabilistic Design Format for Flexible Pavements
한 국	장명순 교수	한양대학교	Quantitative Analysis of Directional Design Hourly Volume Based on Heavier Traffic Direction and Capacity
	오 철 책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 국	김부일 선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Environmental-Friendly and Ecological Road Construction in Korea



6) Session 5

- 주 제 : “Tunnel & Geotechnical Engineering(터널 및 지반)”
- 좌 장 : 전 석 원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자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제
싱가포르	Jian Chu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Applications of Innovative Ground Improvement Techniques to Road and Pavement Constructions
일 본	Hiroshi Miki	Public Works Research Institute	New Technologies for Soft Ground Improvement in Japan
미 국	Jonathan Cheng	Drexel University	Transmissivity of Geotextiles and Geocomposites and Its Application on Highway Retaining Structures
일 본	Tateo Yamaoka	The Japan-Korea Tunnel Research Institute	On the Japan-Korea Tunnel Construction Plan
한 국	김영근 이 사	(주)삼보기술단	A Case Study on Design and Construction for Tunnel Portal Considering Road Safety and Environment
한 국	오해진 전문이사	(주)제일엔지니어링	A Case Study on Design and Construction for 4-Lane Gwangam Tunnel in Seoul Ring Road

7) Session 6

- 주 제 : “Smart Bridges & Structures(구조 및 교량)”
- 좌 장 : 고 현 무 서울대학교 교수
- 발표자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제
일 본	Junichiro Niwa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Outlines of Recommendation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Ultra High Strength Fibe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by JSCE

국 가	이 름	소속기관	주제
일 본	Masatsugu Nagai	Nagaoka University of Technology	Ultimate Strength of Composite I-Girder Under Pure Sagging Bending Moment
한 국	이성철 교수	동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Diagonal Tension Theory of Shear Web Panels
한 국	김 우 교수	전남대학교 토목공학과	A Refined Truss Modeling for Concrete Bridge Girder Having Thin Web and Small Aspect Ratio
한 국	김호경 교수	국립목포대학교 토목공학과	Design of Stabilizing Cable for the Construction of a Cable-Stayed Bridge